

2015년 국가직 7급 한국사 3책형 해설

노량진 아모리이그잼고시학원 7급 한국사 전임 교수 오태진

0. 한국사 난이도—★★★★☆

1. 출제 범위 밖 문제에 대하여

한국사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가장 난감한 상황은, 기본서 범위 밖에서 출제되는 경우입니다. 이번 2015 국가직 7급 시험은 **기본 개념 이외에서 일부가 출제**되어 아리송했을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보입니다.(→ ‘니탕개’, ‘해택지’, ‘복악·남악’) 그러나,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객관식 문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아는 범위 내에서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2. ‘무 자르듯 암기’하는 방법의 폐단이 드러난 시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특히나 7급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최근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의 흐름은(7급 준비생들 중에는 이러한 타입의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본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기본서 정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혹은 ‘요약서(암기노트 포함)’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기본 개념을 최대한 빨리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요약서이다 보니 생략된 내용이나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도 한국사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선덕여왕 사료’, ‘최승로 사료’, ‘임오군란 사료’, ‘안중근 사료’, ‘동국통감 사료’, ‘농지개혁 과정’ 등이 대표적인 예시였다.

3. 많이 틀린 문제 분석 - 한국사 3책형

문항	출제 유형
8번	문화재 문제(장충단·보루각·선원전)
12번	조선 역사서, 동국통감(‘노래’ 형식·‘외기’ 개념)
14번	조선 명종 때의 사실(니탕개, 해택지, 왜구의 전라도 공격)
19번	농지개혁법(신한공사 해체 시기, 기 매수된 토지 처리 문제)
20번	휴전 협상 의제(회담 장소, 휴전선, 포로 송환, 중립국 선정)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강의노트나 요약서를 활용하거나 기본서 정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모두 틀렸다고 가정해도 **최대로 5개 정도 틀려서 75점 정도 득점**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 구간을 득점한 학생이라면 기본서 및 특강 등을 통해 ‘핑크’난 부분을 메워야 한다.

2015년 국가직 7급 한국사 출제 비중

전근대사					근현대사		
선사시대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일제시대	현대사
유적지와 출토 유물 일치 여부	정치	선덕여왕 발해정치	최승로	6조직계제 명종 상황	임오군란 (조약) 대한제국 (문물) 안중근 (을사늑약)	식민사학 (청구학회)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원들)	농지개혁법 6·25전쟁
	경제	촌락문서		후기 경제 (농·상·공)			
	사회						
	문화		불교직문	역사서 (동국통감) 이항·이이 정약용(실학) 건축·과학			
65%(13문제)					35%(7문제)		

- ① 전근대사 : 전근대사에서 많이 출제되지만 근현대사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전근대사 중 출제 비중 : 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으로, 고려 이전보다는 조선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사료형 문제의 비중 '절대적' : 20문항 중 12문항이 사료형이라는 것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읽고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요약서를 '외우기만'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한국사 고득점은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정치사	5문제	선사	1문제	사료형	12문제
경제사	2문제	고대	3문제		
사회사	0문제	고려	2문제	직문형	7문제
문화사	5문제	조선	7문제	순서 배열	1문제

4. 90점 이상 획득을 위한 대책

한국사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기본서)을 정확한 인과 관계를 통해서, '진짜' 한국사를 전달하는 강의 내용을 최대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해설 원칙>

1. 해설은 2015 오택진 대각국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 틀린 선택지문을 위주로 해설을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른 선택지문에도 해설을 달고자 하였습니다.

1.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화석 인골이 발견되었다.
- ②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조와 기장이 수습되었다.
- ③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유럽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출토 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바닥이 납작한 평저(平底)를 특징으로 한다.

1. 정답 : ④

- ④ 서울 암사동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바닥이 납작한 평저(X → 뽕족한 첨저)를 특징으로 한다.

2. 발해와 관련된 다음의 역사적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다.
- ㄴ. 야율아보기에 의해 흘한성이 포위되었다.
- ㄷ.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도읍을 옮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ㄹ.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처음 통교하였다.

- ① ㄷ→ㄴ→ㄹ→ㄱ
- ② ㄷ→ㄹ→ㄱ→ㄴ
- ③ ㄹ→ㄷ→ㄱ→ㄴ
- ④ ㄹ→ㄷ→ㄴ→ㄱ

2. 정답 : ③(ㄹ-ㄷ-ㄱ-ㄴ)

- ㄹ. 무왕 - 일본과의 통교(726) : 당과 신라와의 관계가 밀착되어간 반면 발해와 당의 관계가 악화되어가자 위기를 느낀 무왕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통교를 요청하였다.
- ㄷ. 문왕 - 수도 천도 : 발해 내부의 정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도를 구국(舊國)에서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 이후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로 옮겨 왕조 개혁을 꾀하고, 말년에는(785~793) 다시 훈춘의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 ㄱ. 선왕 - 전성기 : 국가적 중흥기로서 당으로부터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 ㄴ. 애왕 -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직접 지휘하는 원정군은 926년에 발해 서북 지방의 전략거점인 부여성(夫餘城)을 함락시키고 곧바로 진격하여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의 흘한성(忽汗城)을 포위하였다.

3. 다음을 주장한 실학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릇 1여(閭)의 토지는 여민이 함께 농사하고 경계를 나누지 않는다.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수확물을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에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칠 세와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 일수에 따라 여민(閭民)에게 분배 하도록 한다.

- ①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고 실험하였다.
- ②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하여 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
- ③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내놓았다.
-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고 하였다.

3. 정답 : ①

정약용의 「여전론」 사료.

① 『마과회통』(麻科會通)(정조 22년, 1798) : 박진희 . 이헌길 등은 **마진(홍역)·두진(천연두)**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정약용**은 여러 마진에 관한 서적을 정리하여 《마과회통》(麻科會通, 1798)을 저술하였다. 부록에는 『**종두방서**』를 실어 제너의 종두법을 소개하였다. **마치 그는 자기 주장을 실험이라도 해보려는 듯 박제가와 함께 몰래 우두를 처음 실시해보기도 했다.** 때마침 서학이 박해받던 때였기 때문에 드러내고 우두를 보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약용은 조선 후기에 우두를 처음 실험해 본 근대의학의 도입자였다.

- ② 안정복
- ③ 홍대용
- ④ 박제가

4. 대한제국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등이 켜진 경복궁
- ② 한성순보를 읽는 관리
- ③ 종로 일대를 달리는 전차
- ④ 광제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4. 정답 : ②

대한제국 시기(1897~1910)

- ① 전등(1887)
- ② 한성순보 - 1883년 창간, 1884년 갑신정변으로 중단
- ③ 전차(1899)
- ④ 광제원(1899)

5.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을 비판한 연구 경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인보는 5천년간의 조선 역사를 강조하였다.
- ② 신채호는 조선상고사를 연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 ③ 진단학회는 개별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확고히 하는 실증 사관을 중시하였다.
- ④ 청구학회는 조선과 만주의 역사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만선 사관을 견지하였다.

5. 정답 : ④

이 문제는 선택 지문의 옳고 그름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질문 요지에 해당하지 않는 선택지문을 고르는 문제이다.(선택지문의 논리나 오류와는 관계 없음)

④ 청구학회는 조선과 만주의 역사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만선사관을 견지하였다(O). 그러나 문제는 ‘식민사학의 비판’이다. 청구학회는 ‘식민사학 연구 기관’이다.

청구학회란?

조선사편수회와 경성제대의 상호보완적인 기능은 1930년대에 들어 청구학회(靑丘學會)의 발족을 통하여 더욱 긴밀해졌다. **청구학회는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를 연구하여 일반에게 그 성과를 보급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편수회원과 경성제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는 곧 식민사관이 학문적으로 더욱 심화되어가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청구학회는 1930~39년 사이에 학회지인 『청구학총』(靑丘學叢)을 간행하고 연구여행과 강연회를 주최하는 등 1930년대 식민사관에 의한 한국사연구의 학문적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요컨대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형성되기 시작한 식민사관은 합방을 맞이하면서 식민지 동화정책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였다. 조선사편수회와 경성제대가 이를 위한 두 축이 되어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정책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30년 창립된 청구학회는 이같은 식민사관 산실의 두 축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식민지시기에는 『조선사』 37권이 출간되었는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저서 및 논문을 통해 식민사관을 총집결하고 체계화하여 식민정책의 수행에 이바지하였다. 물론 식민사관의 확대에는 합방 이전부터 식민사학을 근대적 학문으로서 뒷받침해준 제국대학도 연결되어 있었다.

6. 밑줄 친 ‘왕’ 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죽기 전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어떻게 해서 모란꽃에 향기가 없고, 개구리 우는 것으로 번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므로 그 향기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것은 당나라 임금이 나에게 짝이 없는 것을 희롱한 것이다.”

- 삼국유사 -

- ① 국사를 편찬하였다.
- ② 영묘사를 건설하였다.
- ③ 향가를 모아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④ 오언태평송(五言太平頌)을 지어 당에 보냈다.

6. 정답 : ②

드디어 출제되었다. 선덕여왕이 ‘먼저 알았다는 세 가지 사실’

- ① 진흥왕
- ② 영묘사 설화
- ③ 진성여왕
- ④ 진덕여왕

<사료 익히기>
선덕여왕의 지혜
 『(경주)영묘사(靈廟寺) 옥문지(玉門池)에서 겨울인데도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들어 3, 4일 동안 울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선덕여왕에게 물으니 왕은 급히 각간(角干) 알천(闕川)·필탄(弼呑) 등에게 명하여 정병 2000명을 뽑아 가지고 속히 서교(西郊)로 가서 여근곡을 찾아보면 적병이 있을 것이니 엄습해서 모두 죽이라고 했다. 두 각간이 명을 받고 각각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가 보니 부산(富山) 아래의 여근곡에 백제 군사 500명이 와서 거기에 숨어 있었으므로 이들을 모두 죽였다. 또한 남쪽 고개 바위 위에 백제의 장군 우소도 활로 쏘아 죽였다. 또 뒤에 군사 1200명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모두 쳐서 죽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신하가 적군의 침입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선덕여왕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개구리가 성난 모양을 하는 것은 병사의 형상이요. 옥문(玉門)이란 곧 여자의 음부(陰部)이다. 여자는 음이고 그 빛은 흰데 흰빛은 서쪽을 뜻하므로 군사가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남군은 여근이 들어가면 죽는 법이니 그래서 잡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최승로는 ‘시무 28조’ 를 올리면서 고려 초기 다섯 왕의 치적을 평하였다.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조는 후한 덕과 넓은 도량으로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궁궐이나 의복에 도를 넘지 않았다.
- ② 혜종은 즉위 초에는 평판이 좋았는데 점차 사람을 의심함이 지나쳐 임금된 체통을 잃었다.
- ③ 정종은 왕규를 처단함으로써 왕실을 보전하였고, 서경천도를 강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서 원성을 샀다.
- ④ 광종은 아랫사람을 예로써 대접하였고, 쌍기를 등용한 후부터 현명한 인재를 얻어 중화의 좋은 법을 성취하였다.

7. 정답 : ④

이 문제는 최승로의 5조 치적평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위장해 놓았으나, 실은 최승로의 광종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이었음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아주 쉽게 ④번을 표기하였을 것이다.

④ 최승로의 ‘5조 치적평’과 ‘시무 28조’. (귀족 중심 체제를 강조한) 최승로는 (왕권을 강화하

고자 한) 광종을 가장 비판하였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은 오태진 교수가 특별히 제공하는 자료이다.

최승로의 5조치적평 중 광종
… 쌍기를 등용한 뒤로부터 문사(오태진 교수 주 : 조익·이몽유·최행규 등)들을 존중하여 대접이 지나치게 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능이 없는 사람(오태진 교수 주 : 쌍기 등의 중국 귀화인·후백제 및 발해 출신들)이 부당하게 등용되고, 순서를 지키지 않고 별안간 승진하여 채 일 년이 되지 않아서 재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 비록 중화의 교화는 소중하게 여겼지만 중화의 법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중화의 선비는 예의로 대우했지만 중화의 현명한 인제는 쓰지 못했습니다. …

8.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훼손 하였는데 남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충단을 공원화하고 그 동쪽에다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는 박문사를 세웠다. 거기에는 ㉡경복궁을 훼손하여 여러 부속 건물을 가져다 놓았고, ㉢원구단에 있던 석고전을 종각으로 변조하였으며,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을 헐어서 정문으로 삼았다.

- ① ㉠-숙종 때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려고 지은 사당이였다.
- ② ㉡-세종 때 만든 보루각과 간의대가 있었다.
- ③ ㉢-을미사변 때 죽은 이경직과 홍계훈 등 충신·열사의 넋을 기리는 제단이였다.
- ④ ㉣-역대 임금의 초상을 봉안하던 선원전이 있었다.

8. 정답 : ②

- ① 장충단 (X → 대보단)은 숙종 때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려고 지은 사당이였다.
- ② 경복궁 - 세종 때 만든 보루각(자격루를 보관하는 전각)과 간의대
- ③ 원구단 (X → 장충단)은 을미사변 때 죽은 이경직과 홍계훈 등 충신·열사의 넋을 기리는 제단이였다.
- ④ 경희궁 (X → 창덕궁)에는 역대 임금의 초상을 봉안하던 선원전이 있었다.

9.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체결된 조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해청 당상관 민겸호의 하인이 선해청 창고에서 군량을 내줬다. 이때 하인이 쌀을 벼 껍질과 바꾸어 이익을 챙기자 많은 군인이 분노하여 하인을 때려눕혔다. 민겸호는 주동자를 잡아 포도청에 가두고는 곧 죽여 버리겠다고 하니 군인들은 분기하여 포도청과 경기 감영을 습격하였다.

- 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락한다.
- ② 일본 공사관에서 경비병의 주둔을 허락한다.
- ③ 양화진에서 청국 상인의 통상을 인정한다.
- ④ 조선에서 청국 상무위원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

9. 정답 : ①

임오군란(사료형)

임오군란 이후, 제물포조약·조일수호조규속약(일본)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청)

① 조일수호조규부록에서,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유통권이 인정되었다.

10. ㉠,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사: (㉠)은/는 힘이 없는 조선이 망하지 않도록 일본이 보호하자는 조약이지 않은가? 그러니 초대 통감을 죽인다고 (㉡)이/가 폐지되겠는가?
 안중근: (㉠)은/는 우리 황제를 협박해 강제로 체결된 것이며, 그 늑약으로 (㉡)이/가 설치된 이후 우리 백성들이 더 많이 학살되고 있다.

- ① ㉠에 반발하여 민중식, 최익현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 ② ㉠에 대하여 장지연은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비판하였다.
- ③ ㉡의 설치는 보안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10. 정답 : ③

㉠ 을사늑약 → ㉡ 통감부(사료형)

③ 통감부(X → 한일의정서 및 대한방침·대한시설강령)의 설치는 보안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11.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촌락)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구와는 달리 전답 면적의 증감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 ② 인구는 남녀를 망라하여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 ③ 촌락을 단위로 소와 말의 수 및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 ④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주민 이름, 성별, 나이와 노비의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11. 정답 : ④

④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주민 이름, 성별, 나이(X → 개별적인 주민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와 노비의 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12. 괄호 안에 들어갈 역사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양에서는 역사학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이론적 근거와 참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동양에서는 역사학의 제1차적인 목적을 귀감에서 찾는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역사책은 ‘거울 감(鑑)’자를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거정이 편찬한 (), 중국에서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주희의 통감강목, 원추의 통감기사본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①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고려 역사를 정리한 기전체 사서이다.
- ②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③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의 역사를 외기(外紀)로 구분하여 서술 하였다.
- ④ 역대 국왕의 사적(事績) 가운데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한 내용만을 뽑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12. 정답 : ③

- ① 『고려사(高麗史)』(세종 28년, 1446 ~ 문종 원년, 1451) : 김종서와 정인지가 세종의 명을 받아 기전체로 편찬하였다.
- ② 『동국세년가(東國世年歌)』(세종 18년, 1436) : 세종의 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용비어천가』와 보완적인 관계였다.
- ③ 동국통감은 동국사략(태종) 이래 역사 서술의 전통을 계승, 보완하여 편찬한 책이다.

동국사략(東國史略)(태종 2년, 1402)

태종이 권근·하륜 등에게 명하여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위만조선 ⇨ 한사군 ⇨ 삼한 ⇨ 삼국시대까지를 새롭게 **편년체**로 편찬하게 하였다.(⇨ **삼한까지는 ‘외기(外紀)’로 간략히 처리**)

동국통감 편찬 서문(서거정)

삼가 삼국 이하의 여러 역사를 뽑고 중국사를 채집하였으며, 편년체를 취하여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범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의거하고 「자치통감강목」의 첨삭한 취지에 따라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 데 힘썼습니다. 삼국이 병립하였을 때는 신라기, 고려 때는 고려기, 삼한(三韓) 이전은 외기(外紀)라 하였습니다. 1400년 동안 국가의 흥망과 임금의 잘잘못을 비롯하여 정치의 성쇠를 모두 거짓 없이 기록하였습니다.

- ④ 국조보감(國朝寶鑑, 세조 4년, 1458) : 조선 역대 왕의 사적 중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한 가언(嘉言)과 선정의 기록을 뽑아 편년체로 편찬한 것이다. 신숙주를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임명하여 『국조보감』을 편찬하게 하여, 태조·태종·세종·문종의 4조보감 7권 4책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국조보감』의 효시이다.

13. 밑줄 친 ‘이 제도’ 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에 임금이 의정부의 권한이 무거운 것을 염려하여 이를 개혁할 생각이 있었으나 정중히 여겨 서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이 제도를 단행하니, 의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오직 사대문서(事大文書)와 무거운 죄수를 다시 살펴보는 것뿐이었다.

- ① 상피제
- ② 6조직계제
- ③ 초계문신제
- ④ 의정부서사제

13. 정답 : ②
 '6조 직계제'(사료형)

14.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왕 대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임꺽정은 양주의 백성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또 날래고 용맹했으며 그 무리 10여 명이 모두 날래고 빨랐다.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만약 이에 항거하면 살을 베고 사지를 찢어 몹시 잔인하게 죽였다.

- ① 회령에서 니탕개(尼蕩介)가 반란을 일으켰다.
- ② 문정왕후의 불교 숭신으로 선교 양종이 다시 설치되었다.
- ③ 세건선의 감소로 곤란을 겪던 왜인들이 전라도를 침범해 왔다.
- ④ 척신과 권신들은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해택지(海澤地)를 개간하였다.

14. 정답 : ①

적중! 명종, 임꺽정의 난 이론강의 : 도사국사

- ① 니탕개의 반란(선조, 1583) : 니탕개를 중심으로 회령 지방의 여진족이 일으킨 반란
- ② (명종 때) 중종의 왕비 문정왕후가 불교를 옹호하면서 보우·휴정·유정 등의 승려가 중용 되면서 다시 교세를 펴게 되었다.
- ③ 을묘왜변(1555) : 국방에 소홀한 틈을 타, 세건선 감축으로 곤란을 겪던 왜인들이 전남 영암·진도·강진 일대를 공격하였다.
- ④ (명종 때) 직전법 폐지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확립은 양반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더욱 증대시키면서 대농장이 확산되었고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15.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이족(異族)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敵)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선언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① 박재혁이 부산 경찰서를 공격하였다.
- ② 김상옥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④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공격하였다.

15. 정답 : ③

조선혁명선언(신채호) → 의열단 행동 강령

③ 강우규는 스스로 '노인동맹단' 소속이라고 밝혔음

16.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통 아래 주통과 균통 등의 승관을 두어 사찰과 승려를 관리하였다.
- ② 요세가 결사한 백련사는 법화신앙을 내세운 천태종 계통의 신앙단체였다.
- ③ 균여는 북악의 법손(法孫)으로서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의 사상을 융합하였다.
- ④ 사찰에서는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승병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16. 정답 : ①

① (X → 신라 진흥왕이 설치한 불교 교단 조직)

③ (북악과 남악으로 분열된 화엄종단을) 균여는 북악의 법손(法孫)으로서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의 사상을 융합하였다.

균여, 화엄종단 통합
 고려 광종은 화엄종의 균여(均如)를 발탁하여 **후삼국 이래 남악파와 북악파로 분열된 화엄종단을 통합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균여가 신라 중대 이래의 화엄종과 법상종간의 대립을 '성상융회'(性相融會)라는 각도에서 극복함으로써 왕실에 대한 이념적 역할을 담당하려 하였으며 아울러 실천신앙을 통해 왕실과 기층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려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17. 다음은 사단칠정에 대한 어느 유학자의 견해이다. <보기>에서 이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단의 발은 순리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은 이기를 겸하였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理乘之).
- 논사단칠정서 -

- <보 기>
- ㄱ. 이는 무형(無形)하지만 기는 유형하므로 이통기국(理通氣局)이라 주장하였다.
 - ㄴ. 간략한 해석을 곁들인 10개의 도형으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집성하여 왕에게 바쳤다.
 - ㄷ. 형이하의 현실세계를 기의 능동성으로 파악하여 경제적으로서는 경장(更張)을 강조하였다.
 - ㄹ.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7. 정답 : ④ (ㄴ, ㄹ)

ㄱ. 이통기국 - 이이

ㄴ. 성학십도 - 이항

ㄷ. 경제적 경장 - 이이

ㄹ. 도덕·이상주의적 경향 - 이항 (☞ 황! 너무 이상적이야!)

18.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면서 환·어음 등의 신용화폐는 점차 소멸하였다.
- ② 이양법의 보급으로 직파법에 비해 김매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하였다.
- ③ 공장안(工匠案)에서 벗어난 납포장이 장인세를 납부하면서 상품생산을 확대하였다.
- ④ 감자·고구마 등의 구황작물과 담배·고추 등의 상업작물이 도입되어 상품경제가 활성화되었다.

18. 정답 : ①

① 신용 화폐의 보급 :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환, 어음** 등의 **신용 화폐**가 점차 보급되어 갔다. 이는 이 시기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과 상업 자본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19. 밀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 ① 귀속농지의 관리 기구인 신한공사를 해체하였다.
- ② 호당 3정보 이하 농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③ 3정보 이상의 농지로 이미 매도된 경우 개혁에서 제외하였다.
- ④ 매수된 농지의 지주에게는 연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보상하도록 하였다.

19. 정답 : ①

대한민국 농지개혁법(1950)(설명제시형)

- ① 중앙토지행정처(1948. 3. 22) : 북한과는 달리, 토지개혁문제가 계속 미뤄지다가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귀속농지를 처리하였다.** 이는 5·10총선을 앞두고 좌익쪽의 정치 공세를 둔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 ③ 농지개혁은 전체 농지 중, 57%만 분배되었다. 그 이유는 농지 개혁 이전, 지주들은 토지를 이미 처분했기 때문이었다.

20. 다음 회담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 의제 : 전투 행위를 정지한다는 전제 아래 양측 군대 사이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고 군사분계선을 정하는 일
 ...(중략)...

제5 의제 :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서 쌍방 관련 국가의 정부에 권고하는 일

- ① 개성과 판문점 등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 ②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 ③ 유엔군 측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의 자동송환을 주장 하였다.
- ④ 쌍방은 소련을 제외한 4개국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20. 정답 : ③

휴전회담(사료형)

①, ③ 휴전협상의 실시(1951. 6. 23) : 이 무렵 미국의 비공식제의를 받아들인 **소련이 유엔을 통해 휴전회담을 제의**해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공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휴전회담은 2년여 계속 되었으나, **군사분계선 설정, 중립국 감시기구의 구성, 포로교환**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그 사이 전쟁이 계속되어 쌍방 간의 희생이 더욱 컸다.

개성회담(1951. 7)	판문점회담(1951. 10)
첫 정전회담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 변경

미군·국군	중국군·북한군
인도주의 ⇨ 자유 의사	제네바 협정 ⇨ 자동 송환
⇨ 미군 측의 주장에 합의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 ④ 중립국감시위원단 : 스위스·잉스웨덴·덴마크·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